

녹동 최연택의 언론출판활동과 딱지본 대중소설 연구*

— ‘사회소설’ 『단소』와 『죄악의 씨』를 중심으로

裴定祥**

- | | |
|---------------------|--------------------|
| I. 머리말 | IV. 최연택 소설의 특징과 의미 |
| II. 신문 미디어와 경계적 글쓰기 | V. 맺음말 |
| III. 문창사 설립과 서적 출판 | |

• 국문초록

녹동 최연택은 1920년대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장 안에서 나름의 개성 있는 행보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신문 매체에 수많은 글을 기고한 언론인이자, 출판사를 직접 설립하여 경영한 출판인이었으며, 몇 편의 특색 있는 소설 작품을 남긴 문학인이기도 했다. 예컨대, 그는 신문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담은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시도했으며, 문창사라는 출판사를 설립·운영하며 출판활동을 통한 사회적 소명을 다하고자 했다. 또한 『단소』, 『죄악의 씨』 등 ‘사회소설’ 연작을 통해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딱지본 대중소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처럼 경계인 녹동 최연택의 언론·출판 및 소설 창작 활동은 식민지 시기 서적출판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흥미로운 사례가 된다.

주제어 : 녹동 최연택, 문창사, 딱지본 대중소설, 단소, 죄악의 씨, 사회소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19919).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I. 머리말

綠東 崔演澤은 1920년대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장 안에서 나름의 개성 있는 행보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신문 매체에 수많은 글을 기고한 언론인이자, 출판사를 직접 설립하여 경영한 출판인이었으며, 몇 편의 특색 있는 소설 작품을 남긴 문학인이기도 했다. 예컨대, 그는 『매일신보』의 고정적인 외부 필진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글쓰기를 시도한 바 있으며, 文昌社라는 출판사를 설립·운영하며 식민지 서적출판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도 했다. 또한 몇 편의 소설을 직접 저술하여, 딱지본 대중소설의 장 안에서 새로운 소설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연택의 다채로운 활동은 이 시기 문학장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흥미로운 사례가 된다.

그러나 녹동 최연택과 그의 저작에 대한 연구는 지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오랫동안 최연택은 언론, 출판, 문학 어디에서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그가 남긴 몇 편의 저작 역시 비슷한 취급을 받아 왔다. 그의 경계인으로서의 특성은 근대적 분과학문 체계 안에서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가 남긴 딱지본 대중소설들은 나름의 개성과 의미에도 불구하고 ‘예술로서의 문학’을 중시하는 지식인 문단 중심의 문학사 서술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학문적 경계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나 대중문학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공고한 듯하다.

최근, 최연택과 그의 저작에 주목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꽤나 반가운 일이다. 김성연은 『매일신보』에 연재된 「프링크린의 自敘傳」을 다루며 최연택이 저술한 다양한 텍스트를 소개하였고,¹⁾ 권철호는 최연택의 작가로서의 면모에 주목하여 그가 남긴 딱지본 대중소설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 바 있다.²⁾ 또한 최희정은 역사학적 접근을 통해 최연택의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언론출판활동 및 야담집 출간 등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시도한 바 있다.³⁾ 한편, 근대 초기 신어사전이라 할 수 있는 『현대신어석의』에 주목하여 이를 언어학적 맥락에서 접근하여 분석한 연구

1) 김성연, 「근대 초기 청년 지식인의 성공 신화와 자기 계발서로서의 번역 전기물-프랭클린 자서전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12~16면.

2) 권철호, 「1920년대 딱지본 신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2, 109~120면.

3) 최희정, 「1920년대 이후 성공주의 기원과 확산-기독교 ‘청년’ 최연택의 자조론 수용과 성공론」, 『한국근현대사연구』 76, 한국근현대사학회, 2016; 최희정, 「1920~1930년대 출판경영인 최연택의 야담집 기획과 출간」, 『석당논총』 7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8.

들도 있다.⁴⁾ 이들 연구는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한 최연택이라는 인물과 그의 저작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시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가 녹동 최연택의 언론출판활동 및 문학적 성과의 전체 규모를 온전하게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의 언론, 출판, 문단을 넘나드는 경계인으로서의 특성과 저술 작업에 대한 더욱 진전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그가 신문에 기고한 텍스트와 문창사를 통해 저술출판한 단행본 서적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는 한편, 이들 자료를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소위 ‘고급문학’에 대한 과도한 경사에서 벗어나 당대의 문학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근대문학의 자리를 균형 있게 복원하기 위한 시도가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녹동 최연택의 언론출판활동을 정리하고, 그가 남긴 문학적 성과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가 남긴 텍스트 전체의 규모를 구체적인 실증을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장으로 시야를 넓혀, 경계인으로서의 특성이 그의 저술·출판 작업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와 작품을 통해 문학의 경계를 탐사하는 한편, 근대 문학의 외연을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될 것이다.

II. 신문 미디어와 경제적 글쓰기

綠東 崔演澤의 가계나 생몰년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는 1895년 생으로 추정되며, 출판경영인 崔永澤과, 아동문학가 崔湖東의 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3세까지 전통적인 서당교육을 받은 다음 아현동에 설립된 근대교육기관인 태극학교에 수학하였다. 이후 보성중학교에 진학한 최연택은 친구 김도연과 함께 1913년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된다.⁵⁾ 하지만 최연택의 일본 유학생황에 대해 알려진

4) 조남호, 「『현대신어석의』 고」, 『어문연구』 31(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박형익, 「1910년대 출간된 신어 자료집의 분석」, 『한국어학』 22, 학국어학회, 2004; 서혜진, 「신어 정착에 대한 연구-『현대신어석의』(1922)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7, 반교어문학회, 2017.

바는 없으며, 귀국한 시기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그의 고백에 따르면 동경에서의 유학생생활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⁶⁾

선행 연구에서는 1914년 ‘綠東’이라는 필명으로 연재된 『매일신보』의 「金太子傳」을 최연택의 작품으로 인식하고 있다.⁷⁾ 시기상으로 볼 때, 그가 짧은 일본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와 「김태자전」 연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⁸⁾ 「김태자전」은 1914년 6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113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된 작품이다. 당시 ‘소설예고’에 따르면 심우섭의 「형제」가 신소설 독자들을 위한 작품인 반면 「김태자전」은 고소설 독자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⁹⁾

그런데, 약관의 나이에 일본 유학에 실패하고 돌아온 최연택이 『매일신보』의 장편 소설연재를 맡았다는 점은 석연치 않은 의문을 낳는다. 당시 유일한 한국어 중앙신문인 『매일신보』에서 장편소설연재를 담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이 무렵 『매일신보』의 장편소설란은 주로 조중환, 심우섭, 이상협 등 유력한 인물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김태자전」 이후에 ‘녹동’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흔적을 이후 5년가량 찾을 수 없다는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綠東’이라는 필명 하나만 가지고 저자를 단정하기엔 여러모로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신문연재 이후 「김태자전」은 유일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유일서관에서 발행된 『김태자전』(1915)은 상하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판권지에는 저작자 鮮于日과 발행자 南宮濬의 이름이 적혀 있다.¹⁰⁾ 당시 ‘저작검발행자’에 출판사주의

5) 최희정, 「1920년대 이후 성공주의 기원과 확산-기독교 ‘청년’ 최연택의 자조론 수용과 성공론」, 『한국근현대사연구』 76, 한국근현대사학회, 2016, 190~193면.

6) 그는 동경 유학시절 유곽 매음녀나 여관의 하녀에게 불결한 정욕을 품거나, 술의 양이 점차 늘어 방탕한 행동을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최연택, 「死亡에서 活路로(一)」, 『活泉』 13, 1923, 45면.

7) 권순궁은 「김태자전」의 작가 ‘綠東’을 언급하며 “본명은 崔演澤이며 당시 통속소설 작가인 듯하다.”라고 했다. 이현숙 역시 「김태자전」의 작자를 “綠東, 綠東生, 崔綠東 등의 필명(號)을 가지고 작품과 사설 등을 게재했던 인물은 崔演澤이다”라고 정리한 바 있다. 이대형 역시 권순궁의 논의를 따라 「김태자전」의 작자를 최연택으로 보고 있다. 권순궁, 「1910년대 활자본 고소설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1, 19면; 이현숙, 「〈金太子傳〉이본 연구-〈母日申報本〉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 한문족문화학회, 1999, 88면; 이대형, 「한문현토소설 〈一堂六美〉의 개작 양상과 의미」, 『동아시아문화연구』 59,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102면.

8) 최희정, 앞의 논문, 193면.

9) 「소설예고」, 『매일신보』, 1914.6.9.

10) 현재 『김태자전』(유일서관, 1915 초판)의 상편은 실체를 찾기 어려우며, 하편은 연세대학교 도서관

이름이 기재되는 것과 다르게 저작자와 발행자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은 이 작품의 실제 저작자가 선우일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게다가 선우일은 당시 『매일신보』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1915년 1월 30일부터 1918년 9월까지 발행 겸 편집인을 맡게 된 인물이다.¹¹⁾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김태자전」의 저자인 ‘綠東’이 선우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자는 선우일의 다른 저작을 살펴보다가 「김태자전」의 저자 ‘綠東’이 바로 선우일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게 되었다. 선우일의 다른 저작 중 『양천대소』(박문서관, 1912)와 『두견성』(보급서관, 1912)이 있는데, 이 두 책 모두 본문 첫머리에 “綠東 鮮于日 著”라고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선우일 역시 당시 ‘녹동’이라는 필명을 즐겨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정리하자면, 『매일신보』 기자 선우일은 ‘綠東’이라는 필명으로 1914년 「김태자전」을 연재하였고, 이후 신문연재본과 동일한 내용의 『김태자전』을 1915년 유일서관에서 출판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김태자전」의 실제 작자를 입증하는 동시에 최연택의 저작 목록 및 활동 시기를 파악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전제가 된다.

녹동 최연택이 처음 미디어 공론장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것은 『매일신보』의 ‘독자문단’이었다. 최연택은 『매일신보』가 주관한 ‘독자문단’이라는 현상문예에서 「閨怨」이란 제목의 작품으로 가작에 선정되었다.¹²⁾ 「규원」은 외형상 7·5조 형태의 신체시이며, 한 여인의 쓸쓸한 회한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제목 아래 “阿峴二六四 崔演澤”이라고 투고자의 주소와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데, 문창사의 주소가 아현리 264호를 사용했으니 이는 녹동 최연택의 작품이 분명하다. 최연택은 이를 계기로 삼아 본격적인 문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매신문단’의 등단 이후 『동아일보』 지면에 몇 편의 글을 투고한다. 그는 1920년 4월 30일 「東亞日報創刊을 祝함」을 시작으로, 「에피큐리안 『快樂主義者』」, 「나는 靑年을 畏하노라」 등 몇 편의 글을 투고했다. 그는 『매일신보』 독자문예를 통해 등단하였지만, 『동아일보』가 창간되자 새로운 기대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11)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89~90면.

12) 「閨怨」보다 조금 앞선 시점, ‘매신문단’에 ‘鷄林 崔演澤의 「籬下菊」이 게재된 바 있다. 최연택이 계림이라는 필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녹동 최연택과 동일인물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籬下菊」, 『매일신보』, 1919.11.10.

하지만 『동아일보』에서의 투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편집진에게도 독자에게도 별다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이 무렵 최연택은 『매일신보』에도 몇 편의 글들을 투고하였는데, 『매일신보』에서는 그의 글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표 1〉 녹동 최연택의 신문 게재 텍스트 목록

제목	매체	날짜	구분
閨怨 (佳作)	매일신보	1919.12.1	每申文壇
東亞日報創刊을 祝함	동아일보	1920.4.30	寄書
에피큐리안 『快樂主義者』	동아일보	1920.5.4	
나는 青年을 畏하노라	동아일보	1920.5.12	寄書
우습 (笑)	매일신보	1920.5.16~17	地方文藝
「스토-이씨슴」	동아일보	1920.5.18	寄書
『成功』	동아일보	1920.5.23~25(3회)	寄書
돈 (金錢)	매일신보	1920.5.28	寄書
목숨 (生命)	매일신보	1920.5.31	地方讀者의 聲
회예 (毀譽)	매일신보	1920.6.1	地方讀者의 聲
맘 (心)	매일신보	1920.6.3	寄書
漢江船遊記	매일신보	1920.6.6	
富의 眞價를 論함	매일신보	1920.6.8	寄書
生苦! 死榮!	매일신보	1920.6.11	
自信論	매일신보	1920.6.13~15(2회)	
男女同等論	매일신보	1920.6.17	
成功의 秘訣	매일신보	1920.6.24~7.5(6회)	
知行合一論	매일신보	1920.7.13	
公會堂의 必要를 論함	매일신보	1920.7.27	
唯心論	매일신보	1920.8.6	
二元論	매일신보	1920.8.19	
不良少年의 原因	매일신보	1920.8.26	
論多功少	매일신보	1920.9.11	

人生的 最大目的	매일신보	1920.9.18~19	
今日吾人の 取舍	매일신보	1920.10.26	寄書
宗教教育和 迷信	매일신보	1920.11.3	寄書
過去와 將來	매일신보	1920.11.18	
傲慢과 謙遜	매일신보	1920.11.12~14(2회)	
演說用語의 注意	매일신보	1920.11.21	
讀書에 관하여	매일신보	1920.11.28	
愛와 淫의 理解	매일신보	1920.12.4~5(2회)	
妥協主義	매일신보	1920.12.12	
傍觀派와 觀望派	매일신보	1920.12.22~23(2회)	
評者の 價値	매일신보	1920.12.30	
時機와 勞作의 論文을 讀고 勿齋君에게 寄함	매일신보	1921.1.3	
欲望과 奢侈	매일신보	1921.1.17~20(4회)	
失戀의 淚	매일신보	1921.1.17	新詩
苦의 生	매일신보	1921.1.27	新詩
臥牛山下에서 石戰을 觀하고	매일신보	1921.1.31	
銀世界	매일신보	1921.2.2	
悔의 淚	매일신보	1921.2.6	新詩
鬼世界	매일신보	1921.2.15	新詩
무엇씩문?	매일신보	1921.2.28. 1928.3.3	新詩
(英國社會劇) 腕環	매일신보	1921.5.13~25(11회)	脚本
勞働者の 價値, 東幕勞働夜學校를 視察하고	매일신보	1921.5.26	
芳草	조선일보	1921.6.3	詞藻
夜市雜感(上)	매일신보	1921.6.12~13(2회)	
(朝鮮社會劇) 父의 眼	매일신보	1921.7.2~13(6회)	脚本
(小說事實談) 누가 너를 허러	매일신보	1921.7.19~20(2회)	小說事實譚
프링크린의 自敍傳	매일신보	1921.10.8~1922.1.24(25회)	
出版業者에게 告함	매일신보	1923.1.14	
(玉卿哀話) 血淚 ¹³⁾	조선일보	1923.3.1~22(12회)	

최연택의 글이 본격적으로 『매일신보』의 지면에 실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1920년 무렵부터이다. 1920년 5월 16~17일 이틀간 4면 ‘지방문예’에 연재된 「우습(笑)」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녹동 최연택’의 이름이 보인다. 이어서 연재된 「돈(金錢)」, 「목숨(生命)」, 「회예(毀譽)」, 「맘(心)」 등은 4면 ‘지방통신판’ 지면에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되었다. 이후 「富의 眞價를 論함」을 시작으로 최연택의 글은 4면의 ‘지방통신판’을 벗어나 1면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으며, 이때부터는 논설의 성격의 지닌 글들이 꾸준히 게재된다. 특히, 「自信論」, 「男女同等論」, 「成功의 秘訣」, 「人生의 最大目的」, 「讀書에 관하여」, 「評者의 價値」 등은 최연택의 사상적 기반 및 서적출판 활동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된다.

흥미로운 지점은 초기의 논설적 성격이 강한 최연택의 글쓰기가 1921년부터 문학적 글쓰기로 그 외연을 넓혀갔다는 점이다. 최연택은 「失戀의 淚」, 「苦의 生」, 「銀世界」, 「悔의 淚」, 「鬼世界」, 「무엇썬?」 등의 ‘新詩」, 「(英國社會劇) 腕環」, 「(朝鮮社會劇) 父의 眼」과 같은 ‘脚本」, 「(소설사실담) 누가 너를 허리」, 「프링클린의 자서전」, 「(玉卿哀話) 血淚」 등의 소설적 글쓰기를 신문이라는 매체의 지면 속에서 실험하고자 했다. 특히, 「(英國社會劇) 腕環」, 「(朝鮮社會劇) 父의 眼」, 「누가 너를 허리」 등은 이후 발표된 단행본 소설의 주된 모티프가 되기도 한다. 결국, 신문 매체의 지면을 통해 이루어진 이러한 최연택의 다양한 글쓰기 실험은 이후 소설 창작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최연택은 처음 일반독자의 입장에서 투고를 시작하였지만, 이후 『매일신보』 편집진의 인정을 받아 정기적인 기고자가 되었다. 최연택의 이름이나 녹동이라는 필명이 명확하게 제시된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최연택은 정식 기자라기보다는 외부 필진 중 한 사람에 가깝다. 물론 『매일신보』는 최연택의 文士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했으며, 최연택은 신문이라는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논설과 문학 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다. 한편, 당시 『매일신보』 기자로 활동하던 宋淳夔, 白大鎭 등과 교류하게 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특성은 언론과 문단 어디에서도 주류가 되지 못했던 최연택의 경계인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구체적 단서가 된다. 그는 신문에 많은 글을 투고하였지만 정식 신문기자가 아니었으며, 다양한 문학적 글쓰기를 시도하였지만 본격적인 장편

13) ‘최녹동 역술’이라고 되어 있으며, 12회가 마지막인데 완결 표기가 없다. 1회는 누락되어 있다.

소설 연재의 기회를 얻지는 못했다. 물론 이것은 보성중학교를 중퇴하고 일본 유학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최연택이 일본 유학생 지식인 네트워크의 중심에 진입하지 못하고 그 경계에 머물렀던 사정과도 관련이 있다.¹⁴⁾ 이러한 특성은 이후 문창사의 설립과 운영, 저술 활동에 중요한 계기가 된다.

Ⅲ. 문창사 설립과 서적 출판

1921년 3월, 최연택은 자본금 2만원을 출자하여 文昌社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출판경영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장재흡의 『조선인회사·대상점사전』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최연택은 원래 명성이 높은 ‘文士’로서 이익보다도 자신의 ‘취미’ 때문에 문창사를 설립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한층 주문이 늘었다고 평가했다.¹⁵⁾ 최연택이 문창사에서 저술 발행한 서적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문창사가 단지 이익을 얻기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는 장재흡의 시각은 꽤나 적확해 보인다.

〈표 2〉 문창사 발행 주요 텍스트 목록

번호	제목	발행일자	저작자 ¹⁶⁾
1	奇人奇事錄 上	1922.5.20	물제 송순기 찬 최연택 서
	奇人奇事錄 下	판권지 누락	
2	(社會小說) 단소	1922.6.28	최연택 작

14) 최희정 역시 최연택을 당시 일본유학생 중심의 학력집단과는 구별되는 경계에 위치한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 최희정, 「1920년대 이후 성공주의 기원과 확산-기독교 ‘청년’ 崔演澤의 자조론 수용과 성공론」, 『한국근현대사연구』 76, 한국근현대사학회, 2016, 194면.

15) 장재흡, 『조선인회사·대상점사전』, 부업세계사, 1927, 96면, “同社は 大正十年三月에 資本金二萬圓을 積立하고 前記場所에서 斯業을 開始하였는데 同社の 主人崔演澤氏는 元來 文筆의 士로 令名이 江湖에 赫々한 文士이외다. 그리하여 同氏는 利益 그것보다도 自己의 趣味 그것 때문에 斯業을 開始하게 되었습시다. 그리하여 同社は 普通書肆와 其趣가 不同하여 京鄕讀書子의 注文이 日至하는 터이오 特히 薄利로 酬應하기 때문에 한層 더 注文이 日至한답니다.”

16) 저작자의 경우 책의 표지나 본문 첫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저자 표기를 그대로 따랐다. 저자

3	(英鮮對譯) 偉人の聲	1922.7.4	윤치호 교열 백대진·최연택 공편
4	(珍奇談話) 東西古今	1922.7.20	최연택 찬
5	(社會小說) 죄악의 씨	1922.9.28	최연택 저
	(社會小說) 죄악의 씨	1922.12.25	봉학산인 작
6	現代新語釋義	1922	최연택 편찬
7	(社會小說) 貧의淚	1923(추정) ¹⁷⁾	
8	(小說) 苦學生 ¹⁸⁾	1923(추정) ¹⁹⁾	최연택 저
9	世界一流思想家論文集	1924.2.29	(최연택 편) ²⁰⁾
10	(義俠小說)義人の 무덤 ²¹⁾	1926.4.15	
11	(五月飛雪) 燕丹의 恨	1926	
12	(韓末巨星) 金玉均先生 ²²⁾	1926(추정)	
13	(동화집) 별바다	1926(추정)	(최연택 저) ²³⁾
14	世界奇問集	1926(추정)	
15	銀行要覽	1926(추정)	(홍종욱, 이택 공저) ²⁴⁾
16	朝鮮의 名勝古蹟	1933.6.11	

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었다. 책에 저자 표기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저자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이름을 표기하였다.

- 17) 『조선일보』 1923년 3월 5일 광고에 『(사회소설)빈의루』가 포함되어 있다. 1922년 12월 25일 발행된 『(사회소설)죄악의 씨』의 문창사 발행 책 광고까지 『(사회소설)빈의루』가 등장하지 않는데, 이로 미루어볼 때 『(사회소설)빈의루』는 적어도 1922년 12월 25일부터 1923년 3월 5일 사이에 발행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 18) 최연택의 동생 최호동(본명 최순택)이 저술한 『문학강의록』 본문 뒤에 실린 『고학생』 광고를 통해 최연택의 저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崔演澤 先生 著”라고 명시되어 있다. 최호동, 『문학강의록(문장편)』, 조선문화협회, 1930, 85면.
- 19) 1923년 12월 23일 『조선일보』에 『고학생』 광고가 처음 발견된다. 이로 미루어보아 1923년에 발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20) 최연택의 동생 최호동이 저술한 『문학강의록』 뒷면에 실린 『세계일류사상가논문집』 광고에 “崔演澤 先生 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최호동, 『문학강의록(문장편)』, 조선문화협회, 1930, 82면.
- 21) 최연택이 단순 발행했을 가능성이 큼.
- 22) 『(韓末巨星)金玉均先生』, 『(동화집)별바다』, 『世界奇問集』, 『銀行要覽』의 문창사 발행 사실은 1926년 9월 14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문창사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물은 확인하기 어렵다.

위 목록을 살펴보면, 최연택은 문창사를 설립한 후 꽤나 다양한 종류의 서적 저술 및 발행에 힘쓴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책들이 1922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최연택은 출판사의 설립과 동시에 이미 몇 편의 책들을 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 책은 勿齊 宋淳夔의 『기인기사록』인데, 최연택은 이 책의 서문을 집필하였다. 이 책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동일한 제목의 연재글을 모아 놓은 것으로, 다양한 조선의 기이한 인물들과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야담집이다.²⁵⁾ 최연택은 『매일신보』 기고활동을 통해 알게 된 송순기와 의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그의 작품을 문창사 설립한 후 첫 책으로 발간하였다.

이어서 최연택은 직접 저술한 작품들을 연이어 출간한다. 『위인의 성』의 경우에는 윤치호, 백대진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였는데, 이 역시 『매일신보』에서의 인적 교류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단소』, 『동서고금』, 『죄악의 씨』, 『현대신어석의』, 『고학생』의 경우 최연택이 직접 저술하여 발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책들의 경우에도 최연택이 직접 저술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최연택이 저술했거나 저술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빈의루』와 『고학생』의 경우 『단소』, 『죄악의 씨』와 함께 최연택이 저술한 딱지본 대중소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인데, 현재 실물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최연택이 문창사를 설립하고 발행한 문창사 서적들은 무척 다채로운 기획들로 이루어져 있다. 서양 위인들이 남긴 격언들을 영어로 제시하고 이를 한글로 번역한 『위인의 성』, 동서양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 놓은 『동서고금』, 근대 시기 대표적 신어사전인 『현대신어석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논문들을 묶어 낸 『세계일류사상가 논문집』, 역사전기소설 『김옥균선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동화집 『별바다』, 은행계의 참고서 『은행요람』, 조선의 아름다운 지역과 장소를 소개한 『조선의 명승고적』, ‘사회소설’을 표방한 딱지본 대중소설에까지 이들 저작은 동시기 발행된 여타 서적들과는 차별화된 개성을 갖는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출판사의 사주인 최연택이 직접

23) 최영택은 최연택의 동생이다. 『동아일보』의 한 기사에 『별바다』는 최영택이 저술했으며 기독교적 색채가 있는 동화가 많은 동화집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신간소개」, 『동아일보』, 1926.9.2.

24) 『은행요람』은 은행계 종사자로 명성이 자자한 洪鐘旭, 李澤이 공동 저술했다고 한다. 「『銀行要覽』發刊」, 『조선일보』, 1926.4.16.

25) 『기인기사록』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간호윤, 「『기인기사록』(상·하) 고찰」, 『어문연구』 34(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337~365면 참조.

기획하거나 저술한 것이라는 점은 기존의 대형 출판사와는 구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다.²⁶⁾

최연택은 문창사 설립 후, 소년소녀를 대상으로 한 잡지 발간에도 힘을 쏟았다. 최연택은 1925년 소년소녀 독자들을 위해 역사, 종교, 과학, 기타 상식 등을 담은 월간 잡지 『담해』를 창간하였으며,²⁷⁾ 1930년에는 『신조선』이라는 잡지를 창간했다가 애국을 위한 희생을 다루는 글을 게재하여 검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²⁸⁾ 이들 잡지가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지만, 최연택의 저술출판활동이 문창사를 기점으로 매우 다양한 관심으로 확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⁹⁾ 따라서 최연택의 문창사 설립과 운영은 이윤추구보다는 계몽운동 또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실제로 최연택은 과거 『매일신보』를 통해 독서의 본의가 과거와 현재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며, 한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거두고 한글서적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³⁰⁾ 또한 일반 독자들이 수많은 책들을 전부 사서 읽기 어려우니 도서관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독서문화를 장려해야 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문창사가 흥미위주나 실용적인 목적의 서적보다는 계몽적 성격이 강한 서적들의 발행에 주력했다거나, 이들 서적들이 대체로 한글 사용을 통해 대중들의 독서 진작을 꾀하고자 했다는 점, 서적의 가격이 동시기 다른 출판사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 역시 문창사의 설립 의도가 단순히 이윤 추구에 있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또 다른 글에서는 출판업과 소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³¹⁾ 그는 출판업이란 단지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

26) 비슷한 시기 출판사를 설립 운영하며 저술활동을 시도했던 또 다른 인물로는 남승 송완식이 있다. 그는 동양대학당을 설립하고, 몇 편의 문학 작품을 직접 저술하기도 했다. 배정상, 「출판인 송완식 문학 연구」, 『민족문화연구』 8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297~324 참조.

27) 「雜誌 『譚海』 創刊」, 『조선일보』, 1925.11.20.

28) 『조선출판경찰월보』 제20호, 1930.4.2.

29) 참고로 최연택은 1938년에는 문창사를 계승하여 창간한 삼공사(三公社)에서 『야담대회록』이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야담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최희정, 「1920~1930년대 출판경영인 최연택의 야담집 기획과 출간」, 『석당논총』 70,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8, 345~374면 참조.

30) 綠東生, 「讀書에 관하여」, 『매일신보』, 1920.11.28.

인생사회의 문화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오색이 영롱한 소설책’, ‘추잡하게 표장한 소설’, 즉 딱지본 대중소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소설이야말로 그 시대와 생활의 현상을 드러내는 사진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선 출판업계에서는 신문관출판사가 제일이라며 출판업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 글이 발표된 시점은 이미 출판사 설립 후 다수의 작품을 발행한 1923년 1월 14일이다. 결국, 이 글은 최연택의 문창사의 저술출판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문창사는 창립 초기 ‘소품문예현상모집’이라는 여타 출판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획기적인 현상공모를 시도하기도 했다. 1922년 7월 21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소품문예현상모집’ 광고에는 ‘新舊文藝의 助長’을 위해 독자 500명의 작품을 모아 문예집을 발간하겠다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소품문예의 종류는 漢詩, 新詩, 諺風, 詩調, 其他雜曲이며,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1원에서 10원까지 원고료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현상문예는 당시 신문이나 잡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출판사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시도는 문창사의 출판활동이 단순히 이윤추구에 머물지 않으며, 문예부흥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포함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가 저술한 몇 편의 소설 역시 이와 같은 문창사 설립과 출판활동의 지향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그가 남긴 『단소』와 『죄악의 씨』는 대량 생산의 장안에서 발행된 작품이지만, 일반적인 딱지본 대중소설과는 또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 두 작품은 여타 딱지본 대중소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회소설’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 장르적 지향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오직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이윤 추구에 몰두하는 일반적인 딱지본 대중소설과는 달리 최연택의 소설은 동일한 서적출판시장 안에서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측면은 최연택 문학이 지닌 독특한 개성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다층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된다.

31) 「출판업자에게 고함(寄)」, 『매일신보』, 1923.1.14.

IV. 최연택 소설의 특질과 의미

1. 신문에서 단행본으로

최연택의 저작 중 가장 눈여겨 볼만한 작품은 『단소』와 『죄악의 씨』이다. 『빈의루』와 『고학생』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발행되었으나 현재까지 그 실물은 확인된 바 없다. 또한 『의인의 무덤』과 『연단의 한』의 경우 앞선 작품과는 구별되는 내용과 형식의 상이성 미루어볼 때 최연택이 직접 저술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³²⁾ 한편, 『단소』와 『죄악의 씨』는 본문 첫 페이지에 최연택의 저작임이 명시되어 있으며,³³⁾ 온전하게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 최연택 소설의 특질과 의미를 살피기에 적합한 텍스트이다.

『단소』와 『죄악의 씨』는 대량생산의 장에서 딱지본 대중소설의 독자들을 겨냥하여 발행된 작품이다. 예컨대, 흥미로운 내용, 순한글, 큼지막한 4호활자, 저렴한 가격, 표지의 그림 등은 이 시기 발행된 여타 딱지본 대중소설과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소설’을 표방하는 만큼 다루는 내용과 주제는 물론 표지 그림의 디자인도 차별화된 개성을 지닌다. 따라서 『단소』와 『죄악의 씨』는 딱지본 대중소설의 장 안에서 이루어진 경계인 최연택의 독특한 문학적 개성을 살피기 위한 효과적인 텍스트가 된다.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사실은 최연택의 소설이 신문이라는 미디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최연택이 문창사를 설립하고 처음 발간한 『기인기사록』이 『매일신보』에서 이미 연재되었던 바 있는 송순기의 글을 모아놓았던 것처럼, 『단소』와 『죄악의 씨』 역시 『매일신보』에서 연재된 바 있는 자신의 텍스트를 모티프로 삼아 창작된 것이었다. 『단소』는 『매일신보』에 연재된 바 있는 「(영국사회극)완환」이 다루는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죄악의 씨』는 「(조선사회극)부의 안」의 주요 모티프를 장편의 분량으로 확대한 것이다.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나머지 두 작품 『빈의루』, 『고학생』 역시 기존의 신문

32) 『의인의 무덤』은 의로운 인물의 죽음과 관련된 두 개의 짧은 고소설과 이광수의 「어린 희생」이 하나로 묶여 있는 작품이며, 『연단의 한』 역시 연나라 태자 단의 이야기를 다룬 회장체의 고소설이다.

33) 이 두 작품의 경우 본문 첫 페이지에 최연택이 저술했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연재물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 광고에 따르면 『빈의루』는 ‘영국의 대사상가이며 대문호인 우드’의 작품을 번역한 것’으로 ‘수년전 모 신문지상에 『理想의 夫婦』라 연재되던 것’³⁴⁾임을 강조하고 있다.³⁵⁾ 한편 『고학생』의 경우 ‘고학생 김성재라는 사람의 사실담’³⁶⁾이라며 광고하였는데, 『매일신보』에 2회 연재되었던 「(소설사실담)누가 너를 허러」가 가난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는 고학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고학생』의 모티프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최연택은 광고를 통해 신문이라는 미디어가 지닌 권위를 활용하기도 했다. 예컨대, 『기인기사록』의 경우 “先爲每日申報上에 年餘를 連載하여 十萬讀者의 喝采를 博得”³⁷⁾라며 『매일신보』에 연재되어 호평을 얻었던 작품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매일신보』의 미디어로서의 권위에 기대어 이미 신문지상에서 독자들의 검증을 받은 작품이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다. 또한 『죄악의 씨』에 수록된 『단소』 광고에서는 ‘조선신보사 소설기자 최연택 선생 저’라는 문구를 강조하였는데, 이 역시 신문이라는 미디어의 권위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³⁸⁾

『단소』에서는 서사의 진행을 위해 신문 기사를 직접 인용하는 기법이 사용되기도 했다. 장기진은 “자선음회에 걸아의 단소”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읽고, 그 아이가 분명 자신의 아들 용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장기진은 이 기사를 읽고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본문에 신문 기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기사제목의 글자를 크고 진하게 처리하고, 부제의 경우 작은 글자로 표현하였다. 기사 끝에는 “(개성)”이라고 기사를 작성한 지역을 표기해 두는 치밀함까지 발휘

34) 「(사회소설)빈의루」(광고), 『조선일보』, 1923.9.30, “本書는 近來英國의 大思想家이며 大文豪인 우드氏의 蕩漾激奔되는 胸海로부터 溢出된 結晶體인디 既히 世界各國語로 翻刊되었스되 오즉 朝鮮語로만 不譯된 것은 一大遺憾이 안리요 弊社는 此를 感하여 茲에 譯出하게 된 것이올시다 此書가 一出한 後로 歐米思想界는 一轉하여 刮目の 別天地를 成케하니 그 內容의 如何한 魅力을 가진 것은 一讀而自解되리로다 數年前某新聞紙上에 『理想의 夫婦』라 連載되든 것이 是라 江湖 僉尊의 記憶이 尙新하리로다 贅言을 不縷하노이다”

35) 또 다른 광고에서는 “年前에 「理想의 夫婦」라고 每日申報에 連載되어 好評을 博得”이라며 그 신문이 『매일신보』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세계일류사상가논문집』, 문창사, 1924, 164면.

36) 『세계일류사상가논문집』, 문창사, 1924, 165면.

37) 최연택, 『(사회소설)단소』, 문창사, 1922, 뒷표지 『기인기사록』 광고.

38) 현재 『조선신보』가 전해지지 않고, 이에 대한 연구도 전무하다. 다만, 최연택은 1922년 무렵 ‘조선일보 고양군 지국장’을 담당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여기서 말한 ‘조선신보’는 ‘조선일보’의 오기일 가능성이 크다.

하고 있다. 이 같은 신문 기사의 활용이나 세부적인 표현은 최연택이 신문이라는 미디어에서의 경험을 소설 창작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최연택의 소설 저술 및 출판은 대체로 신문이라는 미디어에서의 글쓰기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최연택의 신문에서의 글쓰기는 대부분 국한문혼용체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그의 글쓰기가 매체의 기획의도와 독자전략에 의해 일정부분 통제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가 『매일신보』에 투고한 글은 주로 1면에 수록되었는데, 4면에 연재되던 장편의 한글소설과는 달리 1면의 편집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최연택은 『매일신보』의 지면을 통해 「(영국사회극)완환」, 「(조선사회극)부의 안」, 「(소설사실담)누가 너를 허리」를 연재하였으나, 매체의 기획과 담론 속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장편의 소설 형식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최연택의 『매일신보』에서의 글쓰기 경험은 이후 단행본 서적출판시장을 통해 더욱 자유롭고 다양한 형식으로 확장된다.

2. '사회소설'이라는 기획

최연택이 『매일신보』에 연재했던 「(英國社會劇) 腕環」은 근대 초기 영국문학의 수용과정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된다.³⁹⁾ 이 작품은 영국의 극작가 알프레드 수트로(Alfred Sutro, 1863~1933)의 작품 『The bracelet』(1912)을 원작으로 삼고 있는데, 일본의 영문학자 미야모리 아사타로(宮森麻太郎, 1869~1952)가 「(英國社會劇) 腕環」(ジャパントイムス学生号出版所, 1918.3)으로 일본어 번역한 것을 한국어로 재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최연택이 미야모리 아사타로의 일본어 번역 작품을 접하고, 이를 다시 한국어로 재번역하여 『매일신보』의 독자에게 소개한 셈이다.

「완환」은 영국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잃어버린 팔찌를 찾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야기기를 다루고 있다. 부인의 잃어버린 팔찌를 찾기 위해 소동이 일어나고, 똑같은 팔찌가 젊은 가정교사 여인에게서 발견된다. 모두가 그녀를 의심하자, 주인공 남편은

39) 지금까지 「(英國社會劇) 腕環」이나 그 원작인 『The bracelet』(1912)에 대한 연구는 한 번도 이루어진 바 없다. 「(英國社會劇) 腕環」은 희곡이나 번역문학 연구에 있어서도 진전된 논의가 필요한 작품이다.

부인의 팔찌를 부러워하던 가정교사 여인에게 똑같은 것을 자신이 직접 사주었다고 이야기한다. 부인의 추궁 끝에 남편은 무미건조한 삶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 되었던 가정교사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가정을 잃기 싫었던 부인은 남편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지만 가정교사를 떠나보낼 수 없다는 남편의 말에 분노한다. 가정교사는 두 사람에게 작별을 고하고, 자신의 의지로 그 집을 떠나고 만다.

‘사회극’을 표방한 「완환」의 핵심적 주제는 중산층 기혼 남성의 위선적 모습에 대한 비판이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무미건조한 삶 속에서 권태를 느끼는 남성이 젊은 여인에 대한 외도의 감정을 정신적 사랑이라고 포장하며 정당화한다. 이 작품이 ‘영국사회극’을 표방한 이유는 이러한 상황이 특정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시 영국 사회 일반의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조혼한 남성이 가정에 소홀하며, 신여성과의 자유연애를 유행처럼 꿈꾸던 당시 조선 사회 일반의 문제와 매우 닮아 있다. 특히, 최연택의 『단소』는 ‘사회소설’을 표방하며 전통적인 결혼제도와 새로운 연애문화의 충돌을 통해 발생하는 비극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⁴⁰⁾

『단소』에서 음악가 장기진은 처자식을 버리고 홀로 상경하여 신여성 양정숙과 새로운 살림을 차린다. 이후 장기진은 극도로 궁핍한 생활 속에서 눈이 먼 부인과 단소를 불며 구걸생활을 하던 아들 용남과 결국 재회하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한다. 하지만 새로운 사랑을 놓칠 수 없었던 장기진은 정숙을 쫓아가다 그만 기차에 치어 죽게 된다. 이러한 장기진의 모습은 「완환」의 주인공과 닮아 있으며, 이는 한 특정한 개인을 넘어 조선 사회 일반의 문제로 확장된다. 최연택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다 결국 좌절하게 되는 장기진과 아버지를 내버려두고 유부남과 사랑의 도피를 시도한 양정숙이라는 인물을 통해 당시 자유연애라는 새로운 풍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던 청춘남녀들을 비판하고자 했다.

40) 『단소』에 대한 한 광고문에는 작품의 저술 취지와 목적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주목할 만하다. 최연택, 『죄악의 씨』, 문창사, 1922.9.28, 68면, “이책 우리 청년 남녀는 셔으로부터 드리고 밀려오는 풍조에 정신없이 들쳐서 예전 우리의 구도덕을 조흔 것이나 좇치 못흔 것이나 아울러 무시(無視)하야 경조부박흔 행동을 막우흔는 쑈해 참으로 무참흔 비극도 만히 연출흔는도다 오인은 이것을 저지하여를 성의로 이 글을 썻느니 동흔시는 인스어든 이것을 혼번 넘어주시오”



〈그림 1〉『(사회소설) 단소』(문창사, 1922)

또한 『단소』에는 장기진과 양정숙 이외에도 백남옥과 박메리 커플이 등장한다. 조혼한 백남옥은 아내와의 깊은 정이 성기어지자 ‘신진여자’와의 자유연애를 꿈꾼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백남옥은 기부를 통해 ‘가면의 사상가’ 노릇도 하고, 교회에 가서 독실한 신자인 체도 한다. 그는 교회에서 학식도 풍부하고 외국어도 잘하는 아름다운 ‘신진여자’ 박메리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박메리는 남옥이 기혼자임을 알게 되지만 그와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결국 메리의 종용에 따라 남옥은 본처와 이혼하게 되고, 결국 남옥과 메리는 결혼하여 새가정을 꾸리게 된다. 백남옥과 박메리라는 인물 역시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연애폰조를 비판하기 위한 또 다른 장치인 셈이다.

물론 최연택이 자유연애를 무조건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그린 것은 아니다. 분명 장기진과 양정숙, 백남옥과 박메리 커플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은 꽤나 긍정적인 시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들이 자신의 사랑을 직접 선택하는 일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속에 놓여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비판의 구체적 대상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기존의 가정을 깨뜨리고 처차식을 배신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혼을 통해 이루어진 전통적 결혼 제도를 비판하고, 자유연애를 통해 이루어진 결혼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겼던 대다수 유학생 지식인들의 입장과는 구별되는 지점이자 『단소』라는 작품이 지닌 특별한 개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죄악의 씨』는 『매일신보』에 자신이 연재했던 「(朝鮮社會劇) 父의 眼」의 이야기 화소를 장편의 대중소설 형식에 맞도록 확장한 것이다. ‘조선사회극’이라는 표현처럼 「부의 안」은 당시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희곡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영국사회극)완환」을 번역하여 연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의 실정에 맞는 사회극으로 창작된 것으로 보인다. 「부의 안」은 실업가 민중식이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파산하게 되고, 한량인 아들 병철이 뻔뻔하게 기생오입할 돈을 달라고 하자 충격으로 그만 눈이 멀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죄악의 씨』에서는 민영철이 과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죄악의 씨’ 명식의 부랑한 짓에 의해 충격을 받아 눈이 멀게 된다. 세세한 설정은 차이가 있지만, 「부의 안」의 핵심적인 모티프를 장편소설의 형식에 맞도록 확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단소』와 마찬가지로 『죄악의 씨』 역시 ‘사회소설’을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단소』가 주로 새로운 연애풀조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했던 것과는 달리, 『죄악의 씨』는 주로 계급이나 교육 등 사회적 환경을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킨다. 민영철이 남편이 있는 오정자를 강간한 것을 개인적 문제보다 계급적 환경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은 꽤나 독특하다. 인간의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것을 제어하느냐 폭발시키느냐는 계급이나 권력의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범적인 명식은 친부인 민영철의 집에서 살게 되자 점차 부랑한 인간으로 변모하게 되는데, 이는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반영한 결과이다. 이처럼 『죄악의 씨』는 여타 딱지본 대중소설에서는 보기 드문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개성을 지닌다.



〈그림 2〉 『조선일보』(1923.3.5) 문창사 사회소설 광고

1923년 무렵 발행된 문창사 작품 중 『(社會小說)貧의淚』 역시 『단소』, 『죄악의 씨』와 함께 당시 조선의 사회문제를 다루는 작품이다. 1923년 3월 5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문창사 광고에는 ‘사회소설’이라는 동일한 장르표지로 간행된 세 개의 작품이 나란히 제시되었다. 『단소』가 무분별한 연애편조, 『죄악의 씨』가 계급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빈의루』의 경우에는 제목에서 짐작컨대 자본주의 사회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소설’이라는 장르표지는 동시기 여타 소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며, 최연택의 소설 기획과 전략의 방향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시도가 딱지본 대중소설의 장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딱지본 대중소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최연택은 문단이라는 경계를 넘어 식민지 문학시장 안에서 ‘사회소설’이라는 일련의 기획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사회소설’ 시리즈는 어쩌면 당시 지식인 중심의 문단에 적합한 기획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량생산의 장 안에서 일반 대중독자들이 소설에 기대하는 것은 사회비판이나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단지 ‘현실을 잊게 만드는 흥미로운 이야기’였기 때문이다.⁴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연택은 딱지본 대중소설의 독자들을 겨냥한 일련의 ‘사회소설’을 대량생산의 장 안에서 저술·발행하였다. 일견 무모해 보이는 이러한 기획은 문창사라는 자신의 출판사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볼 수 있다. 그는 일련의 ‘사회소설’을 통해, 이익만을 추구하는 서적출판시장 안에서 소설이 지닌 사회적 효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3. 총독부 검열과 명예훼손

최연택의 ‘사회소설’은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로 인하여 총독부 검열에 의해 수차례 제제를 받기도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죄악의 씨』의 다중 판본에 관한 것이다. 특이하게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죄악의 씨』는 두 개의 판본이 존재한다. 하나는 1922년 9월 28일에 발행된 것이며, 나머지

41) 김기진은 소위 ‘이야기책’의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울긋불긋한 표지, 커다란 활자, 저렴한 가격, 읽기 쉬운 문장, 현실을 잊게 하는 재미있는 내용 등을 이야기책의 특성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기진, 「대중소설론」, 『동아일보』, 1929.4.14~20.

하나는 1922년 12월 25일에 발행된 것이다. 1922년 12월 25일 발행된 두 번째 판본의 경우 재판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판권지에는 분명 초판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림 3〉『(사회소설) 죄악의 씨』와 두 개의 판본

두 개의 판본에서는 몇 가지 변화된 지점들이 눈에 띈다. 위 그림을 보면, 표지의 그림이 달라졌고, 본문 첫 페이지의 작자 이름이 “綠東 崔演澤 著”에서 “鳳鶴山人

作”으로 변경되었다. 판권지의 경우 발행 날짜가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며, “編輯兼發行者 崔演澤”이 “著作者 崔演澤 發行者 崔演澤”으로 변경되었다. 본문의 경우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로 증가했으며, 가격도 25전에서 30전으로 늘어났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일까. 이러한 특징은 총독부 검열 제도와 식민지 서적출판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가 첫 번째 판본의 표지에 담겨 있다. 첫 번째 판본의 표지에는 일본어로 적힌 붉은 글씨가 낙서처럼 적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표지가 이상하니 제거하라’라는 총독부 검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⁴²⁾ 표지에는 칼을 찬 순사에게 호송되는 죄인의 모습을 그려 놓았는데, 검열관은 이것이 식민통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칼을 찬 순사는 공권력을 장악한 일본인을, 호송되는 죄인은 식민지 사법체계 안에서 규율되는 조선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당시 모든 출판물은 총독부의 검열을 받아야만 간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표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책들이 조선총독부 경무국에 제출한 납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파란색 도장이 찍혀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죄악의 씨』 첫 번째 판본은 경무국 검열을 받기 위한 납본이며 실제 출판·유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최연택은 『죄악의 씨』를 출판하기 전 첫 번째 판본을 제출하여 검열을 받았으나, 표지 그림을 비롯하여 몇 가지 지적을 받아 이후 두 번째 판본으로 수정하여 발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변화들은 명예훼손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판본의 경우 본문 첫 페이지에 “綠東 崔演澤 著”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판본의 경우 “鳳鶴山人 作”으로 바뀌었다. ‘봉학산인’은 『현대신어석의』의 서문에서 사용한 바 있는 최연택의 또 다른 필명인데, 이는 자신의 실명을 드러내기보다 필명을 통해 자신을 방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이름이 閔泳轍에서 閔泳淫으로, 閔暝植에서 閔種植으로 바뀌었다. 한편, 민영음이라는 이름을 직접 노출하기보다 관직이름인 ‘유수’나 ‘민색마’ 등의 표현으로 바꾸어 놓은 것도 수차례 발견된다. 이는 아마도 작품 속 모델이 되는 실존 인물과의 간격을 벌리고, ‘淫’이나 ‘種’이라는

42) 유춘동,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72, 한국서지학회, 2017, 372면.

글자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또한 직접적인 이름의 노출을 줄이는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 등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기법으로 보인다.

작품에서 주인공의 아내 오정자를 강간한 강화유수 민영철과 부정한 결과로 태어난 민명식은 부패한 친일 귀족 민씨 일가를 연상시킨다. 특히, 민영철은 대표적인 친일파 閔泳徽를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 탐관오리였던 민영휘는 1889년 강화유수로 재직한 일이 있는데, 작품의 배경이 ‘지금으로부터 삼십여 년 전’이니 정확히 그 시기가 겹친다. 또한 민명식이 민영휘 아들 형제의 이름인 衡植, 大植, 奎植과 유사한 점도 그 가능성을 높여준다.⁴³⁾ 작품이 발간된 1922년 무렵 민영휘는 휘문의숙을 설립하고 대동사문회 회장에 선출되는 등 굉장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으니 이러한 점은 분명 작품 발간에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최연택은 이 무렵 명예훼손죄로 백원의 벌금형을 받고 항소한 전력이 있는데, 이러한 경험도 다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⁴⁴⁾

이러한 측면은 다른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고학생』의 경우에도 검열로 인해 출간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의 광고는 저간의 사정을 짐작케 한다.

“實로 此書는 數年前부터 此世에 出頭코져 하였으나 여러 가지 不自由와 拘束中에서 오릭동안 警務局에 拘置되였다가 畢竟은 數個處에 削除를 當하고 放免케 되니 遺憾은 遺憾이올시다. 그러나 一嚮을 去한다고 全鼎의 味가 俱減될 理업고 一斑을 蔽한다고 全豹의 形을 全匿할 수가 업겟습니다.”⁴⁵⁾

이 광고에서 최연택은 수년전부터 『고학생』을 발행하고자 했으나, 경무국의 검열로 인해 여러 군데 삭제를 당하고 간신히 발행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또 다른 광고에서는 ‘고학생 김성재라는 사람의 사실담’으로 ‘사회주의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며 홍보하였는데,⁴⁶⁾ 이 작품의 검열 받은 대목이 사회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

43) 권철호, 「1920년대 딱지본 신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11면.

44) 최연택은 조선일보사 고양군 지국장으로 일하던 중, 흥업사 계장인 韓台煥의 사기행위를 고발하였다가 소송에 패해 명예훼손죄로 백원의 벌금형을 받고 항소한 사실이 있다. 「명예훼손죄로 벌금 박원」, 『매일신보』, 1922.8.19.

45) 『조선일보』, 1923.12.23.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최연택은 검열로 인한 소설 출판의 어려움을 광고 문안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최연택의 출판인으로서의 역량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그밖에도 최연택이 총독부 경무국의 검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은 수차례 확인된다. 『錦囊秘話』는 富豪 가정의 불륜관계를 저주하고 무산대중을 위한 투쟁을 운운하고 전편에 걸쳐 난륜관계를 묘술했다는 이유로 출판금지 되었으며, 최연택이 발행인으로 참여했던 잡지 『新朝鮮』의 경우에는 애국정신을 운운하는 내용의 논설 때문에 검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⁴⁷⁾ 이러한 측면은 최연택의 저작이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일관된 태도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회소설’을 표방한 최연택의 소설은 동시기 대량생산의 장에서 출판된 다른 대중소설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회비판적 내용과 주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주목할 만한 개성을 지닌다. 그의 소설은 총독부 검열과 명예훼손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대응 결과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윤만을 추구하는 딱지본 대중소설의 문제점을 지양하기 위한 나름의 방편이자 대응전략의 일환이었던 셈이다.

4. 윤리적 고뇌와 기독교적 대안

‘사회소설’ 『단소』와 『죄악의 씨』는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에 머물지 않는다. 최연택은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주인공의 윤리적·도덕적 변민의 지점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했다. 이 역시 동시기 딱지본 대중소설과는 구별되는 최연택 소설이 지닌 차별화된 개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단소』의 장기진은 처자식을 버리고, 신여성 양정숙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어느 날 양정숙은 청아한 단소 소리를 듣고 아이와 눈먼 여인을 집으로 초대하고, 장기진은 그들이 부인과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장기진은 여인의 무릎에 엎드려 울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정숙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떠난다. 이때 장기진은 도덕윤리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46) 『세계일류사상가논문집』, 문창사, 1924, 164면 『고학생』 광고.

47) 권철호는 이러한 내용을 『조선출판경무월보』를 통해 제시한 바 있다. 권철호, 앞 논문, 110면.

결국 사랑을 택하고 정숙을 뒤쫓아 간다. 결국 그는 기차에 치여 죽게 되는데, 이러한 비극적 결말은 결국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의 승리로 귀결되지만 장기진이란 인물에 입체적인 개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된다.

한편, 『단소』의 경우 자유연애의 환상을 경계하며 구가정으로의 복귀를 제시하는 한편, 무정한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자선심을 잃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자선가의 아들 김성재는 거지라고 괴롭힘을 당하는 용남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개성 예배당의 박목사는 황해도 흉년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용남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결국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자선심은 냉혹한 근대적 자본주의 세계를 극복하기 위해 작가가 제시한 나름의 대안인 셈이다.

『죄악의 씨』의 김철수는 작품이 다루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꽤나 공을 들인 인물이다. 정든 고향을 떠나 멀리 객지에서 홀로 일하던 김철수는 부모의 급보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는 강화 유수 민영철에게 강간을 당해 정신 이상이 생긴 아내와 태어난 아이를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침착하게 아내 오정자의 고통을 감싸주고 아이마저 친자식처럼 키우자고 한다. 심지어는 민영철 개인의 죄가 아니라 그의 지위와 권세가 그 죄를 낳은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 국가제도와 사회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오정자를 구하기 위해 다정한 말로 그녀를 안심시킨 철수는 그날 밤 차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단도를 집어 든 채 민영철의 집을 향한다. 민영철의 방 앞에서 고뇌하던 철수는 결국 그를 죽이지 않고 칼을 던져 겁만 주고 돌아온다. 이처럼 작가는 김철수를 이상주의적인 인물로만 그리지 않고, 인간적인 분노를 함께 지닌 인물로 묘사했다.

이후 칠팔년 뒤, 민영철의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우던 김철수는 어느 날 ‘우리나라 사회개혁에 희생’하겠다고 집을 떠난다.⁴⁸⁾ 더 이상 자신과 같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집을 나선 그는 중국 상해에서 몇 해를 보내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학 社會學을 공부한다. 명망 높은 사회학자가 된 그는 ‘社會平權論’을 발표하여 세계적인 환영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불평이 많았는지 러시아로 건너가 과격한 無政府黨에 몸을 던지기도 한다. 하지만 조선에 돌아온 김철수가 사회개혁에 헌신하기 위해 결국 선택한 것은 바로 기독교인데 이는 사회문제

48) 최연택, 『죄악의 씨』, 문창사, 1922.9.28, 36면.

해결에 대한 작가의 신념을 읽어낼 수 있는 장치가 된다.

『단소』의 박목사처럼, 『죄악의 씨』에서는 황의경, 즉 황목사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황목사는 예전 김철수가 개성에서 일할 때 만났던 사람으로 일본 동경 유학을 통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인물이다. 이십년 만에 조선에 돌아온 김철수의 내력을 듣게 된 황목사는 김철수에게 비구니가 된 아내 오정자를 찾아 함께 방황하는 조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자고 제안한다. 결국 김철수는 ‘한갓 불평만 부르짖기’보다 사회에 공헌하고 희생하기 위해 황목사의 제안을 허락하게 된다. 이후 ‘신의 사자’가 되어 생활하던 김철수 앞에 ‘죄악의 씨’ 명식의 패륜으로 눈이 멀어버린 민영철이 거지꼴을 하고 나타난다. 김철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대로 민영철을 진심으로 용서한다.

이처럼, 『단소』와 『죄악의 씨』에 담긴 종교적인 구원 또는 해결 의지는 최연택의 개인적 체험과 관련이 깊다. 그는 1923년 『활천』이라는 종교잡지에 「死亡에서 活路로」라는 고백적 성격의 글을 남긴 바 있다.⁴⁹⁾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의 잘못들과 방탕한 생활을 솔직히 고백하며, 신비로운 신앙체험을 통해 그간의 행동을 뉘우치고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韓益燦 목사의 복음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술회하였다. 결국 최연택은 종교를 통해 구원을 얻었고,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소설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V. 맺음말

임화 이후 한국의 근대문학사 서술은 소위 ‘문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20년대 이후 작가, 비평가, 연구자를 중심으로 한 보이지 않는 공동체 의식이 문단이라는 울타리를 구성하고, 문단은 문학이 지닌 다른 예술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그 의미와 가치를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나갔다. 한편, 식민지 서적출판문화 속 자본주의적 상품으로서의 문학을 경계해야 할 타자로 설정하고 그와는 다른 예술로서의 문학이나 미적 자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설정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문학은 이렇게

49) 『활천』 13~15, 활천사, 1924.

정전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시각을 달리해보면 이러한 문단 중심의 문학이 동시기 문학의 총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식민지 시기 발행된 신문이나 잡지, 단행본 등을 뒤져보면 근대문학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작가나 작품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대번에 깨닫게 된다. 이들 중 다수를 이루는 한 그룹을 범박하게 ‘대중문학’이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예술이라는 가치보다 대중독자와의 교감과 소통을 더욱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 대중문학은 더 나아가 식민지 서적출판문화의 자본주의적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마다하지 않는다.

녹동 최연택은 언론, 출판, 문단의 경계에서 자유롭게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하고자 했다. 그는 신문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담은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시도했으며, 문창사라는 출판사를 설립·운영하며 출판활동을 통한 사회적 소명을 다하고자 했다. 또한 『단소』, 『죄악의 씨』 등 ‘사회소설’ 연작을 통해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딱지본 대중소설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처럼 녹동 최연택의 언론·출판 및 소설 창작 활동은 식민지 시기 서적출판문화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흥미로운 사례가 된다.

특히, 그가 남긴 『단소』와 『죄악의 씨』는 딱지본 대중소설의 장 안에서도 이채를 발휘하는 작품이다. 그는 딱지본 대중소설이 지닌 상업적 성격을 비판하면서, ‘사회소설’ 연작을 통해 소설의 교훈적 가치를 문학시장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했다. 이들 작품은 신문에서 연재된 작품들의 모티프를 반영·확장시킨 것으로 신문 기고를 통해 느꼈던 한계를 자신이 설립한 출판사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 또한 그의 소설이 지닌 사회비판적 성격은 총독부 검열로부터 일정한 제재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그의 소설에 나타난 날카로운 사회 비판과 기독교적 용서와 화해는 여타 딱지본 대중소설에서는 찾기 어려운 독특한 개성이다. 이처럼 그의 작품은 딱지본 대중소설의 다채로운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다시 문학이란 무엇인가? 진부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여전히 유용한 질문이다. 근대 문학사의 자리에는 여전히 고급문학의 경계에 있거나 그 경계 밖에 존재하는 무수한 문학의 형태가 존재한다. 이것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들에 대한 B급 감성이나 취향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문학에 우열을 매기는 위계화 된 틀을 부수고, 순혈한 문학의 경계와 벽을 허물 때 비로소 근대문학의 자리를 온전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존 문단 중심의 문학에 대한

과도한 경사에서 벗어나 당대의 문학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근대문학의 자리를 균형 있게 복원하는 일이다. 모두의 관심이 더 많은 경계적 텍스트에 당기를 기대해 본다.

투고일: 2021.07.20

심사일: 2021.08.19

게재확정일: 2021.09.03

참고문헌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출판경찰월보』

백대진·최연택 공편, 『(영선대역)위인의 성』, 문창사, 1922

송순기, 『기인기사록』 상·하, 문창사, 1922

장재흠, 『조선인회사·대상점사전』, 부업세계사, 1927

최연택, 「死亡에서 活路로(一)」, 『活泉』 13, 1923

_____, 『(사회소설)단소』, 문창사, 1922

_____, 『(사회소설)죄악의 씨』, 문창사, 1922.7.20

_____, 『(사회소설)죄악의 씨』, 문창사, 1922.9.28

_____, 『(진담기화)동서고금』, 문창사, 1922

_____, 『현대신어석의』, 문창사, 문창사, 1922

_____, 『세계일류사상가논문집』, 문창사, 1924

최호동, 『문학강의록』, 조선문화협회, 1930

『(의협소설)의인의 무덤』, 문창사, 1926

『오월비설』연단의 한』, 문창사, 1926

『조선의 명승고적』, 문창사, 1933

간호윤, 「『기인기사록』(상·하) 고찰」, 『어문연구』 34(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권순궁, 「1910년대 활자본 고소설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1

권철호, 「1920년대 딱지본 신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2

박형익, 「1910년대 출간된 신어 자료집의 분석」, 『한국어학』 22, 학국어학회, 2004

배정상, 「출판인 송완식 문학 연구」, 『민족문화연구』 8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서혜진, 「신어 정착에 대한 연구-『현대신어석의』(1922)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47, 반교어문학회, 2017

유춘동, 「구활자본 고소설의 검열본과 납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72, 한국서지학회, 2017

이대형, 「한문현토소설 <일당육미(一堂六美)>의 개작 양상과 의미」, 『동아시아문화연구』 59,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4

이현숙, 「<金太子傳>이본 연구-<母日申報本>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 한민족문화학회, 1999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조남호, 「『현대신어석의』 고」, 『어문연구』 31(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 최희정, 「1920년대 이후 성공주의 기원과 확산-기독교 ‘청년’ 최연택의 자조론 수용과 성공론」,
『한국근현대사연구』 76, 한국근현대사학회, 2016
- _____, 「1920~1930년대 출판경영인 최연택의 야담집 기획과 출간」, 『석당논총』 70, 동아대
학교 석당학술원, 2018

A Study on Nok-dong Choi Yeon-taek's Media Publishing Activities and Ttakjibon Popular Novels

Bae, Jeong-sang

Nok-dong Choi Yeon-taek is a character who shows his own unique course in the colonial book publishing culture of the 1920s. He was a journalist who contributed numerous articles to newspapers, a publisher who founded and managed a publishing company himself, and was also a literary man who left several distinctive novels. For example, he tried various writing methods that contained his thoughts and philosophy through the media of newspapers, and tried to fulfill his social vocation through publishing activities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publishing house called Munchangsa. He also attempt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takjibon popular novels that were immersed in the pursuit of profit through a series of 'social novels' such as 『Danso』 and 『Seed of Sin』, and to present criticism and alternatives to social phenomena. As such, Marginal man Nokdong Choi Yeon-taek's media, publishing, and novel creation activities are an interesting example for understanding the book publishing culture during the colonial period.

Key Words : Nok-dong Choi Yeon-taek, Munchangsa, Ttakjibon popular novels, Danso, Seed of Sin, social novels

